

## 25년 6월 목회일정

8일(주일)	초빙설교(김성욱목사-몽골선교사/선교보고) 성령강림주일
15일(주일)	성찬가족심방(1-김용대/2-김영민/3-최진언)
22일(주일)	강단교류(김해개혁장로교회-김우곤강도사)
29일(주일)	문화주일-성경으로 영화읽기(2/4분기특별헌금) 초빙설교(이광원강도사-본교회)
2일(월)	동래시찰회(십자가교회당)
13-15일	노회선교대회(온천교회당)

##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장학목적(고려신학대학원)
3. 강단교류주일 / 오늘은 김해개혁장로교회와 강단교류주일입니다. 오전오후 설교를 김우곤강도사께서 하겠습니다.(예배인도-양주동목사) 김해개혁장로교회-최성림목사
4. 초빙설교 / 다음 주일(29일) 오후예배 - 이광원강도사(본교회)
5. 문화주일 / 다음 주일 오후에는 [문화주일- 성경으로 영화읽기]가 있습니다. 감상영화는 [청설(한국 리메이크)]입니다  
모든 성도가 참석 가능하며 영화를 감상하신 후 교회밴드에 올려주시고, 주일 오후에 간단한 평가회가 있겠습니다.
6. 2/4분기특별헌금 /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경상비)
7.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 이 달의 봉사자

	06월	07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김용대	김명순
안 내	이광원	김민혁

##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6.22.(제29-25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튼튼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 사  
설교 김우곤 강도사

교회소식

## 개 회

\* 예배에로의부름 ↑ 시66:1-2(교송)  
인도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지어다  
회 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 축 복 의 인 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 배 찬 송 ↑ 시편96편(4-5)

## 죄의고백

\* 십 계 명 봉 독 ↓ 신 5장(주계명/교독)  
\* 죄 의 공 적 고 백 ↑ 제 9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 사 찬 송 ↑ 찬송57장(4a-4b)

##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살전5:16-18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00편  
설 교 ↓ 설교자

##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 성례시행

세 레 식 ↓ 필요시 시행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5장(4a-b) 구제헌금 분별 분잔  
목 회 의 기 도 ↑ 설교자

## 봉사사역

봉 헌 및 봉 헌 찬 송 ↑ 찬송가432장

## 폐 회

\* 강 복 선 언 ↓ 양주동목사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b>주일오후예배</b>	오후 3시	인도 설교	양주동 목 사 김우곤 강도사
교회소식			
<b>개 회</b>			
* 예배예로의부름 ↑	계19:6-7(교송)		
인도자 :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회 중 :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 축 복 의 인 사 ↓	벧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 배 찬 송 ↑	시편111편(3-4)		
<b>신앙고백</b>			
* 신 앙 고 백 ↓	니케아신경		
* 감 사 찬 송 ↑	찬송 1장		
<b>말씀봉사</b>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갈 1:5-11		
교 리 문 답 교 독 ↓	벨직신앙고백서 7조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93편		
설 교 ↓	설교자		
<b>성경의 충분성</b>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b>자비사역</b>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가201장		
<b>폐 회</b>			
* 강 복 선 언 ↓	양주동목사		

주일설교를 기억하며(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1. 성도의 기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한 고난과 함께 오는 기쁨임을 알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도록.
2. 기도가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사용하도록. 기도를 씬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도록.
3.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도록.

고려신학대학원(원장 : 기동연 교수)

1. 신학교를 통해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는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배출되게
  2. 진리파수의 요새가 되어 바른 신학을 전수하고 바른 신앙을 세우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3. 교수들의 신학과 삶이 신학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고신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가게
- 고려학원을 위하여
1. 고신대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나되어 이 학교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2. 신대원이 이 세대를 깨울 신실한 말씀사역자들을 배출하여 고신교회가 이 세대를 변화시켜가게
  3. 복음병원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사명감으로 의술을 감당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직임감당하도록

진리의 말씀이 낳은 자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다. 교회는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받아 우리, 곧 성도를 낳아 우리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선포한다.(약 1:19)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신부 교회 위에 뿌려지고, 이제 당신의 신부된 교회가 우리를 낳았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낳은 당신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 앞에는 아버지의 이름, 곧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바된, 새롭게 생명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처럼 우리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이름은 원래 우리에게 붙여질 수 없는 이름이다. 우리는 이전에 죄의 자녀들이었다. 죄악중에 잉태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그 도(Logos),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도를 통하여 낳아진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께 속한(Christian)’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낳은 참 아버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분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살아져야 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마음 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다.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은 말씀으로 낳은바 되었다는 칭송을 들어야 한다. 성부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가 우리를 잉태케 했고, 그 말씀을 받은 교회가 우리를 낳은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참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억지로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의 원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도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사랑의 띠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진정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로 낳은 바 된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다.

어떻게? 한의학에서는 우리의 먹는 것이 체질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 성도가 어머니 교회의 공급하는 생명의 말씀과 아버지 주님의 상에 배설된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일에 빠른 자가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를 낳은, 우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를 닮아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듣기를 속히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 가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사생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주간 암송(게시하시는 성령하나님)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6월22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432장
성경봉독	.....	살 5:16-18
설 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

1.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해야 할 이유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I. 항상 기뻐하라

2.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나요(살전 1:6)?

3.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쁨은 누구와 닮아있나요?

4. 성도가 받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요?

II. 쉬지 말고 기도하라

5. 기도는 무엇인가요?

6. 오늘 본문 외에 기도하길 쉬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7. 성도가 기도하길 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III. 범사에 감사하라

8.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9.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나요?

10. 우리 일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6월22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201장
성경봉독	.....	갈 1:5-11
설 교	성경의 충분성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 교회는 성경 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벨직신앙고백서 제7조 [유일한 신앙의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충족성]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할 것은 거기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대체로 기록되어 있기에,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부당하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아니,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떤 것을 보태든지 혹은 거기서 어떤 것을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에, 성경에 있는 교리는 어떤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다.

사람이 쓴 어떤 신성한 책이 있었다 치더라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는 지고 하기에, 관례, 대중, 고전, 연륜, 전승, 회의들, 법령들, 혹은 제도 등등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며 공허 그 자체보다도 더 공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이 절대 무오한 규칙과 조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배격하는 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 대로다. "영들이 하나님에게로 부터 왔는지 시험해 보라", 또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와서 이 교리를 전하지 않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

1. 다른 가르침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2.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